

거룩함을 완전히 이루는 성도

성경말씀: 고후6:11-7:1

이번 여행은 영과 육이 매우 힘든 여행이었다. 너무 지치고 힘들어 “과연 내가 목사인가,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인가?” 하는 회의가 들었다. 미국 교회 방문: 진리 추구의 열정을 보지 못함. “설교 가능할까?” 내가 이끄는 우리 교회는 어떤가? 교인들의 수는 늘어나는데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들이 느는가? 하나님의 아들딸이 무엇인지 아는 성도들이 느는가? 성도가 누구인지 아는 자들이 느는가? 폴 트립의 <목회 위험한 소명>: 목사가 가르쳐야 할 것, 두려움 속에서 거룩함을 완전히 이루는 것(7:1)

거룩함

현 시대 교회들이 잃어버린 것: 하나님의 거룩함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사람

사람의 타락: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롬3:23).

구원: 이 영광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하는 것(벧후1:4). 이 영광은 거룩함

거룩함이 없이는 하나님을 보지 못한다(히12:14). 모세, 이사야 등이 본 것: 하나님의 거룩함

하나님은 무모와 같이 우리를 징계하신다. 그 이유, 거룩함에 참여하게 하려고(히12:10)

우리는 성도(saint), 거룩히 분리된 자, 그래서 구원받으면 영원토록 거룩함을 추구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성도의 궁극적인 목표. “내가 거룩하니 너희는 거룩하라!”(레11:44-45)

목사로서 내 자신과 내 아이들과 성도들에게 들려줄 말: <거룩함을 완전히 이루는 성도>

고린도 교회

은사가 많은 교회, 재능이 많은 교회

그런데 항구 도시에 있던 이 교회는 세상과 타협하려고 한다(음행, 당파 싸움, 법정 소송, 주의 만찬 무시, 부활 부인, 사도 바울 부인). “질서가 없다.”

주범: 거짓 교사들(고후11:4),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고후10:7-10; 갈1:6-9)

거룩함 무시, 그래서 바울은 이들에게서 떨어져 나와 분리할 것을 요구한다.

분리

구원받은 성도에게 가장 중요한 교리: 그러나 가장 무시되는 교리

신약성경에서 분리(separation)에 대해 가장 잘 보여 주는 곳, 분리는 곧 거룩함(따로 떼어놓는 것).

하나님은 분리의 명수: 노아의 방주의 사람과 짐승, 아브라함, 유대인, 유대인도 지파별로 분리, 정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레11). 성도도 분리됨, 세상도 쫓개심(행17:26-27)

분리는 오류와 진리를 구분하는 일, 목사와 교사의 일: 분별과 분리(겔44:23)

현 시대는 모든 것을 통합하는 시대(integration), 적그리스도는 통합의 명수(단8:25)

은 세상이 통합 분위기라 ‘분리’라는 말/행위 자체가 배척을 당함, 교단도 통합이 가장 썩 많은 교회들이 종교 일치 운동: “교회가 교회가 아니다.”

14-16절: 너희와 믿지 않는 자들의 차이: 본성이 다르다.

우리는 하나님의 본성을 지녔다(벧후1:3-4). 그래서 주님을 기쁘게 하는 자들과 사귄다.

명예: 두 짐승을 이어 주는 막대, 불공평한 명예(신22:10)

사귄, 친교, 일치, 뭉, 조화

의와 불의, 빛과 어둠, 그리스도와 벨리알,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들 그래서 신자가 불신자와 결혼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옳지 않다.

16절의 ‘너희’는 교회 성도들: 이들 곧 지역 교회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우리 교회가 주님의 성전

17절: 사52:11과 겔20:34-41

하나님의 백성은 더러운 데서 나와야 한다: 구약의 이스라엘(민33:50-56), 신약 교회(요 17:14-17), 하나님의 부르심(계18:4-5)

이 땅의 교회는 완벽하지 않다: 계시록에는 교회의 정결이 많이 나온다(계2:14-16; 20-24 등). 하나님의 아들딸의 의미: 닮았다.

7장 1절: 이런 약속은 6:17-18의 약속, 육과 영의 모든 더러움

육의 더러움(롬1:28-32, 갈5:19-21, 벧전4:3)

영의 더러움: 육의 더러움보다 훨씬 더 나쁘다.

바리새인: 모든 것이 깨끗한데 영이 더럽다(마23:25-26).

분리를 주장하는 독립침례교회 성도들 가운데 영이 더러운 바리새인이 많다.

바리새인의 뜻: 분리하는 자,

웃, 머리를 잘한다고 해서 신자는 아니다. 먼저 마음이 변해야 한다.

그러므로 여러 가지 규율로 사람을 잡는 것은 까딱 잘못하면 바리새인을 만든다.

양복, 치마, 넥타이, 극장 No, 그런데 완고하고 교만하고 진리에 복종하지 않는다.

육과 영의 두 가지 더러움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야 한다.

기준: “미심쩍으면 피하라”. 대부분 그런 것은 더럽다.

성경을 읽고 거기에 따르려고 하면 양심이 살아난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거룩함을 완전히 이루라.

거룩함은 하나님의 근본 속성(벧전1:14-16; 례11:44-45)

거룩함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데서 나온다(잠8:13; 9:10; 10:27; 14:27 등).

교회 생활에서 실제적인 더러움

1. 아이들: 부모와 선생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고집을 피우며 말을 듣지 않는 것
2. 성도들 a. 언행에서 믿지 않는 자들과 달라야 한다. b. 교회에서 질서 있게 행해야 한다. c. 교리에서 부패함이 없어야 한다(성경, 구원, 성화).

거룩함을 완전히 이루려면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야 한다.

폴 트립의 <목회 위험한 소명> pp. 164-167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우리가 생각하고 행하는 모든 일과 우리의 소원의 동기가 되어야 한다.

1.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아내를 대하는 방식, 자녀 양육 방식, 직업 활동 방식, 돈을 다루는 방식, 대인 관계, 공동체의 일원으로 살아가는 방식, 자기 자신에 대해 생각하는 방식에 영향을 미쳐야 한다.
2. 절망에서 빠져나올 때, 큰 기쁨을 느낄 때, 죄를 애통하며 회개할 때, 다른 사람의 잘못을 너그럽게 용서할 때, 능력의 한계를 벗어날 때 겸손히 그것을 인정하는 일, 즉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내 존재의 모든 영역을 지배하게 해야 한다.
3.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 사람은 철로가 아닌 맨 땅을 달리는 기차와 같이 위험하다.
4. 목회 사역의 목적: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회복시켜 주는 것
5. 교회의 목적: 창조의 목적대로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가진 사람들을 양육하는 것
6. 예배의 목적: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가르치는 것(주일학교, 청소년 사역, 청년부, 자매 모임, 찬양대, 성경 암송 모임 등 모든 일의 목표)
7.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알면 교회의 존재 목적을 벗어나지 않는다(음악, 예배, 건물, 자산).